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박성미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wanuniwa@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GLP(비학위)	(국가) 미국
기 간	2017.1.4.~2018.1.3.	[귀국일: 2017년12월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2월 5일

신 청 인 : 박 성 미 (인)

1. 대학 선택과 현지 환경

2년차 해외 대학으로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학 비학위 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비학위 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샌디에고, 미주리, 켄터키 대학교 3곳이었는데 샌디에고는 학비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켄터키는 비학위 과정이 개설된 지 2년차로 역사가 짧아 학교 행정 처리와 현지 생활 관련 네트워크 면에서 미주리가 경쟁력이 더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2016년 봄 학기에 세 곳의 학교에 현지 생활과 학교 교육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미주리 주립대학 아시아센터로부터 꼼꼼히 작성된 출국 전 준비사항과 현지 생활 안내 자료를 받았기에 본 대학을 최종 선택하였다.

미주리 주립대학은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작은 대학도시 컬럼비아에 위치한다. 가까운 대도시로는 동부의 세인트 루이스와 서부의 캔자스 시티(자동차로 2시간 거리), 북부의 시카고(자동차로 7시간 거리)가 있다. 주요 산업은 교육, 병원, 보험업으로 거주자는 대부분 백인(약 80%)이며 현지 교민들은 대학 관련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컬럼비아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 온대 기후로 평균 기온은 12도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 겨울이 상당히 덥고, 추운데 비하여 컬럼비아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봄, 가을이 상대적으로 긴 느낌이다.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덜 덥고(7월 평균 25도) 덜 습하며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덜 추우나(12월 평균 영하 2도) 더 건조하다. 때때로 날씨 변동이 심하여 2017년에는 2월 중순에 며칠간 5월의 봄 날씨를 보이기도 했고, 12월에 며칠간 10월의 가을날씨가 찾아오기도 했다. 또한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져 미주리주 남부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허리케인 경보로 1층에 대피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바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겨울에는 간혹 얼음이 섞인 비가 와서 지역 공항이 폐쇄될 때가 있으므로 봄 학기 등록을 위해 12~1월에 입국하는 경우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사계절 햇빛이 매우 따가워 선크림, 선글라스가 필수이다.

2.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미주리 주립대학의 아시아센터에서 운영하는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 중국, 태국 등 아시아에서 온 교육생들이 미국의 문화, 정치 제도와 경영 관리 등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한국인(약 70%)으로 군, 공직, 공기업, 대학 종사자들이다. 강사들은 다년간 아시아인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 아시아 문화와 아시아인 특유의 영어 발음을 잘 이해한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담이 거의 없고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화기에 애하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수업의 수준이 영어 초, 중급자에 맞춰져 있으므로 고급 수준의 어휘 구사와 실력 향상을 원한다면 대학교 수업을 청강하거나 개인 과외를 받거나 다른 대학을 선택하기를 권한다.

학기는 1년간 총 4학기로 구성된다. 학기당 7~8주로 총 4과목을 수강하는데 월, 수 2과목, 화, 목 2과목씩 수강하며, 시간은 오전 9시15분~10시 30분, 10시 45분~오후 12시까지로 과목당 1시간 15분으로 이루어진다. 과목의 내용은 영어 어휘,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등 영어 교육과 미국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1과목당 4~10명씩 수강하며 강의, 토론, 발표가 혼합되어 있다. 1, 2학기 중에는 매주 오후 1시간씩 미주리 주립대학 언어학과의 학생으로부터 1:2로 발음 교정 수업을 받는다.

정규학기 이외에도 1월과 7월의 방학 중에 갓 입국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생활 적응을 위한 예비 학기를 2주간 운영한다. 정규학기 중 월~목요일 아침에는 미국의 현재 이슈에 대한 뉴스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원하는 교육생은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 격주로 수요일에는 국제 정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컬럼비아 인근의 관광지과 지역 축제, 행정 기관을 방문하거나 야구, 농구, 미식 축구 등 스포츠를 관람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KDI 대학원의 버디 프로그램처럼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주리 주립대학 학생과 1:1로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현지 생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살 집과 차량은 소속 기관이나 지인을 통해 인수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시아센터에 요청하면 주택, 차량을 인계하고 싶은 교육생을 매칭하여 준다. 필자는 미국에서 혼자 생활할 예정이었으므로 당초에는 아시아센터로부터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추천 받았으나 마침 같은 시기에 입국한 다른 독신 교육생이 있어 하우스 메이트를 제안했고, 소속 기관의 선배로부터 방 2개, 화장실 2개의 아파트(월 625달러)와 살림, 차량을 인수하였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구조가 비슷한데,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븐, 냉장고 등이 빌트인이었고, 각종 수리 요청 시 관리인이 당일 또는 익일 처리해 불편한 점은 없었다.

미국 식당은 메뉴판에 써있는 음식 가격에 세금, 팁이 추가되어 대개 한 끼당 15~20달러 정도로 비싸게 느껴진다. 대학 구내식당은 그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음식이 기름지고 짜서 부담스럽거나 점심식사는 샐러드와 작은 샌드위치 등으로 양이 적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오후 12시 수업 종료 후 바로 집으로 가서 요리를 해 먹었다. 대부분의 미국 학생, 직장인들도 점심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편이다. 주택가 주변에 월마트, 하이비 등 저렴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 마트가 많이 있으며, 대학교 내에 작은 한국 식료품 마트가 있어 한국 식재료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4. 기타 경험담

미국에서 나의 목표는 그 동안 직장 일을 핑계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 활동, 구체적으로는 악기 배우기와 운동,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KDI 대학원에 다닐 때 가을 학기부터 해금을 배웠는데 미국에서는 강사가 없어 매일 오후 인터넷 강의로 독학을 했는데 마지막 학기 종료 후 교육생 발표회 때 해금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플루트,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 악기는 본인이 원한다면 아시아센터에서 소개해 주는 미주리 주립대학 음대생이나 현지 교민으로부터 과외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체육관에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가 신기록을 수립한 수영장이 있다.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수영장과 온수풀을 독점하다시피 사용할 수 있고 저녁 시간에 레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관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어 수강할 수 있다. 기타 요금이 저렴한 시립 체육관과 골프장이 있어 많은 교육생들이 이용한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서 자동차로 여행하기가 두려워서 친구와 함께 인근 도시만 차로 이동하고 먼 곳은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하였다. 컬럼비아의 지역 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도시는 시카고, 세인트 루이스, 덴버, 댈러스로 한정적이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동부와 서부에 몰려 있어 중부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어디로 가든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여행을 많이 계획하는 경우 거주지와 대학 선택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한 이후에는 주로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미국 도로는 넓고 차량이 많지 않아 쾌적하며 운전 중에 보는 풍경이 멋지므로 하루 8시간 이상 운전해도 그다지 피곤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가 혼잡한 미국 동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주요 도시들을 둘러보고, 비교적 한적한 서부와 남부는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하였다. 자동차 여행 시 유의할 점은 로드킬을 하거나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해가 지기 전에만 운전하기를 바란다.

비가 그친 후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서 무지개 사이로 운전한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에서 지낸 1년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사전에 여행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해 더 많은 곳을 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모쪼록 사진과 TV에서 본 미국의 대자연의 멋진 풍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별로 뚜렷한 특색이 있는 현지 문화를 많이 경험해 보길 권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오영수	학번	201611034
휴대전화		이메일	

대학원명	(Missouri-Columbia / non-degree)	(국가) 미국
기 간	'17, 1. ~ '17, 12	[귀국일: 2018년1월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일

신 청 인 : 오 영 수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GMP 1년차 과정을 마무리 해가면서 2년차 과정에 어느 나라의 어떤 대학을 선택할까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여러 나라로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영국을 가고 싶어서 영국의 대학을 알아봤으나 학비부담과 생활물가가 높고, 기후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결국은 미국을 선택했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비학위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쪽 비학위의 경우 UCSD쪽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아무래도 비싼 물가와 소속기관의 재정지원 한계로 인해 미국 중부지역 미주리주의 콜럼비아시에 위치한 미주리콜럼비아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미주리주 중부에 위치한 콜럼비아시(Columbia)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서부로 통하던 관문 역할을 하던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약 20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서부로 연결되는 도시의 하나인 캔사스시티(Kansas City)가 역시 2시간 거리(약 2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미국 5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Chicago)가 미국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는 약 7시간 거리(약 700km)에 있어 비교적 대도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미주리(Missouri)주의 주도인 제퍼슨시티(Jefferson City)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 동/서/남부 전역 어느 곳이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미주리주는 약간 동부쪽에 치우쳐져 있는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내륙지역이어서 다소 건조하며 강수량은 많지 않고 대체로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날씨입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미주리대(University of Missouri)는 1839년 미시시피강 서쪽에 최초의 공립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내 상위에 속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있어 좋은 평판을 유지한 미주리대는 4개의캠퍼스가 한 개의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 으로 묶여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그 중 콜럼비아 캠퍼스(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가 메인(Main) 캠퍼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주리대 유일하게 미대학 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 미국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교 연합체로 34개의 주립대와 26개의 사립대로 구성)의 멤버이다. 미주리대 산하 아시아센터는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노력에 의해서 1998년에 설립되었다. 아시아센터(미주리 국제교육원, Asian Affairs Center)는 최고 수준의 대학캠퍼스, 주정부 및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한국 정부와의 유대 관계, 공공기관과 여러 사회시설과의 근거리에 위치한 최적의 주변 환경, 그리고 AAC의 최상의 지원 서비스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AAC는 주정부의 경제발전국과 미주리대가 참여해 설립한 공동출연기관으로서 1998년에 설립되었음. AAC의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많은 연구자료와 교육자료를 공급 받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학, 주정부, 콜럼비아시 정부와 산업체, 세인트루이스와 캔사스시티 등 대도시의 국제산업 및 무역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AAC는 중앙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그리고 KDI 정책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공무원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도 2003년부터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

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중장기 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분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개발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연수참여자들이 미국의 문화, 정치 제도와 경영관리 등을 이해하느로서 국제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무엇보다도 미주리 주정부 및 산업체들과 연수참여자들의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AAC는 한국정부 및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그 결과, AAC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이곳 AAC 주관의 비학위 과정의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오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각 요일마다 75분 수업을 2개씩 듣게 되며, 과목당 75분 수업 2개를, 월수 2과목, 화목 2과목으로 1주에 수강하게 됩니다, 1 session은 대략 7주정도이며 session별로 4과목씩을 수강합니다.(*1년 과정은 총 4개 Session으로 구성됨)

이곳의 수강신청은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AAC GLP(Global Leadership Program)코디네이터인 유승권 박사께서 세션 시작 전에 강의계획표를 이메일로 보내오면 이를 보고 다시 이메일로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AAC에서는 각 과목당 Unexcused absence를 2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GLP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션이 끝난 후 자유주제로 각 스칼라들의 프리젠테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AAC의 선생님들과 동료 스칼라들을 모시고 자유주제로 약 15분 내외로 발표를 하게 되고 발표 후에 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증서를 받게 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콜럼비아 및 미국의 주요 거주형태는 개인주택과 임대주택(아파트 또는 듀플렉스) 두 가지가 있음. 방문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단기이므로 주로 임대주택에서 생활을 하게 됨.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어 임대주택은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됨. 콜럼비아의 경우 임대주택의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 시 한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Deposit)으로 선납하게 됨.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있으나, 그 수가 적고 가 능하다 하더라도 기본 월세 보다 월세 금액이 다소 비싸지는 단점이 있음. 또한, 개인 주택을 월세로 빌려 살 경우 본인이 주택관리(잔디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음. 아파트 선정 및 임대 계약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시아센터에서 사전에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추천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선호하는 임대주택의 위치 및 가격대를 미리 알려 주고 첫 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을 송금하거나, 도착한 후에 집주인을 만나 첫 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콜럼비아 및 미주지역 임대주택(아파트, 듀플렉스 등)에 관한 정보는 www.move.com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AAC에서는 배우자를 위한 spouse program이 마련되어 있어 부부가 같이 화, 목 2일은 학교를 가게 됩니다, AAC에서는 격주로 한번씩 Field Trip을 가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매번 참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센터에서 차량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경험을 시켜주니까 미국에 대

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기타 활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도 방학기간을 이용한 미국 여행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1st세션이 끝나는 3월 초중순경, 따뜻한 지역인 플로리다를 많이 가십니다. 대부분 차를 끌고 가시는데,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를 8시간~10시간 달리는 건 보통인데, 새삼 미국땅이 넓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국 남부(텍사스), 서부, 동부 및 시카고 여행 등을 다녀왔습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 및 지역에서 오신 스칼라 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거창하지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동안 삶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셔서 뭐 한가지는 제대로 이루어 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영어공부면 영어공부,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 교제면 교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것을 거의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서도 뭔가 하나는 꼭 배우거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럴만한 시간도 여유가 없으니까요. 즐거운 2년차 외국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